

‘인문한국 3.0’ 사업 선정

전북대, 2030년까지 총 120억원 연구비 지원받아
아프리카 대륙의 젊은 세대 복합적 변화 등 연구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인문한국 3.0(HK 3.0)’ 사업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대 프랑스·아프리카 연구소와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의국 어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4개 대학 연구소가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대형 인문학 연구 프로젝트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총 120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이에 연구단은 ‘아프리카 MZ세대와 넥서스(Nexus) 인문학: 아프리카리티(Africallity)와 글로벌리티(Globality)의 역동성 연구’라는 아젠다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 젊은 세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복합적 변화와 역동성을 다차원적으로 조망할 계획이다.
특히 융합적인 인문학 관점에서 아프리카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

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단은 △아프리카 연구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 △학문후속세대 육성 △대중문화 인프라 및 연구 역량 강화 △인문자산의 축적 및 확산 등을 추진하며 전방위적인 연구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화림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아프리카 인문학 연구를 촉진하고, 아시아의 독자적인 관점을 반영한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연구 성과의 단계별 확산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개념기반 학습 이해·실천 나눔

수석교사 중심 연구회, 교과연수년 특수분야 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공모를 통해 수석교사 중심 연구회인 ‘깊이있는 수업 채어링’을 교과연수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깊이있는 수업 채어링’은 2022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개념기반 학습을 수업에서 녹여내고 있는 수석교사 4인과 10년 이상의 경력 교사 4인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앞으로 도내 초·중등 교사의 희망을 받아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수업으로 실천한 사례에 대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1부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2부는 7월 1~4일 운영되며, 장소는 전주 대안교육지원센터 3층 강당이다. /장은성 기자

연수는 개념기반 학습의 이론을 수업으로 녹여내기 위해 감안해야 하는 수업설계 시 주안점과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는 다음 링크(<https://forms.gle/YzPhDD2WwCoA6Ng5>)에 접속해 오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이 연수는 ‘깊이있는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성찰을 현장의 수업으로 실현하기 위해 매진해 온 수석교사들의 열정과 수업의 깊이를 엿볼수 있는 기회”라며 “개념기반 탐구수업에 관심있는 교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과정 공동 개발

교사 역량 강화 협력

전주비전대, 전북자치도

직장어린이집연합회와 협약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9일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어린이집 연합회와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과정 공동 개발, 현장실습 연계, 취업 지원,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어린이집연합회 박수경 회장(농촌진흥청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해 김미경 부회장(국토정보공사 랜디어린이집 원장), 조인주 총무(KOAT새싹어린이집 원장), 이민희 회계(전주지방법원 어린이집 원장) 등과 전주비전대학교에서는 양시내 유아교육과 학과장과 김나리, 이영주, 송화진 교수가 참석했다.

우병훈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대학의 교육역량과 지역 교육현장의 실무경험이 만나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우리 대학 재학생들에게는 보다 실제적인 교육과 실습 기회를, 지역 현장에는 전문성 있는 예비 보육교사를 제공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유아교사 양성기관 평가에서 3회 연속 A등급(최우수)을 획득한 바 있으며, 현장 중심의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9일 온누리홀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과 공동으로 제13회 미래전북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국가첨단전략사업과 전북자치도 성장동력’

전주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과 ‘제13회 미래전북포럼’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9일 온누리홀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과 공동으로 제13회 미래전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전북특별자치도 성장동력’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지아이이노베이션 이병건 회장, 기초과학연구원 이진두 이사장, 한국기계연구원 김봉기 부원장의 특별강연으로 1부를 진행했다. 2부는 연세대학교 민동준 명예특임교수, 비나텍(주) 성도경 대표이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양호 교수, 전북특별자치도 오택필 도민안전실장,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이 참여한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1부 특별강연에서는 먼저, 이병건 회장이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황과

미래신성장동력 육성 전략 제언’이라는 주제로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제약, 바이오 산업의 혁신적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눴다.
이어 이진두 이사장이 ‘과학기술 혁신과 첨단산업 지속성장’이라는 주제로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동력인 과학기술이 어떠한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다뤘다.
아울러, 김봉기 부원장은 ‘AI/DX 기반의 제조업 혁신과 서비스화’라는 주제로 제조업의 효율성 향상, 생산성 증가를 위해 AI와 DX 기술 전환 사례 등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열쇠를 제시했다.
2부 패널토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진배 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전북 지역 경제 성장에만 그치지 않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결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주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산학협력과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원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고민했던 열정의 에너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위대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아이디어로 이어지고, 의미있는 정책으로 연결되는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전북자치도

지역인재 채용 설명회 참여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9일 국립군산대학 체육관에서 개최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에 참석해 ‘취업컨설팅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 설명회에는 국민연금공단,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토정보공사 등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에서 있는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해 25년도 채용 진행일정 및 최종합격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안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정책 안내 및 취업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 부스에서 채용 설명회에 참여한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MBTI성격&적성검사와 프레지더 홍미&적성 검사를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전공 관련된 직업 선택 및 구직활동에 성공하기 위한 준비도 진단을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전주 평화의전당에서 ‘2025 교육과정 연계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2025 교육과정 연계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

전북교육청, 고 1·2학년 부장·담임교사 등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0일 전주 평화의전당에서 ‘2025 교육과정 연계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내 일반계고 1·2학년 부장 및 담임교사, 대입지원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날 연수는 고교학점제와 2026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진학지도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준 공공입학사정관(전 오산고

교사)이 오전에는 고 1 부장 및 담임교사들을, 오후에는 고 2 부장 및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학년별 대입제도에 대한 핵심 이해와 맞춤형 진학지도 방향을 안내했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대학별 전형 연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해 교육과정 중심의 진학지도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장은성 기자

유·초 연계 이음학기 시범운영 대폭 늘린다

전북교육청, 올해 118개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유·초 연계 이음학기’ 시범운영을 기존 59개원에서 118개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고, 초등학교에 대한 입학 적응 및 지원을 통해 취학 전 자녀를 둔 학부모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5세 2학기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 입학 전 부모교육, 놀이중심 언어교육, 1학년 통합 교과 연계, 법교과 연계 수업 등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적응을 지원한다.
시범운영 기관은 1학기에는 유·초 상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교원학

습공동체 운영 등 준비사항을 운영한 후, 2학기에는 유·초 연계 특색활동을 통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는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특색 교육과정 운영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 협력 강화 △유·초 상호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선도교사제 운영 △보호자 교육 및 홍보 등이다.
김운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유·초 이음교육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적응을 도와 학령기 학력신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학부모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미국 스테이디움고와 학생 교류 본격화

전북교육청, 글로벌 브릿지 캠프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글로벌 브릿지 캠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워싱턴주 스테이디움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3년 12월 미국 워싱턴주교육청과 체결한 국제교류 업무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테이디움고등학교는 1906년 타코마시에 최초로 설립된 공립 고등학교로, 고딕 양식의 캠퍼스와 함께 진로·진학 프로그램, 예술·기술 교육, 영어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유명하다. 특히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브릿지 캠프는 오

는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12박 14일간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시에 위치한 스테이디움고등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도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8명이 참가해 영어 집중 수업, 대학·정부기관·기업 방문, 현지 학생들과의 공동 수업과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글로벌 소통 역량과 진로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23년부터 미국·필리핀·중국·일본·캐나다 등 해외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지역 산업·대학 간 협력체계 강화

전주대 경영대학,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와 협약

전주대학교 경영대학은 지난 9일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와 지역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영경형 센터장과 전주대 경영대학 김효진 학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지역 산업과 대학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주력산업 분야 연구개발 △상호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RISE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협력 사업 추진에 협력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기업들의 요구에 맞춤형 채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산학협력을 통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지역 산업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물리·작업치료사

자격교육과정 개발

전주기전대 작업치료과

물리치료 덕재샘과 협약

전주기전대학 작업치료과(총장 조희천)는 10일 20만 팔로워 물리치료 덕재샘(밴유어블라이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밴유어블라이프 한재덕 대표와 박세란 팀장, 전주기전대학 안소현 교수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건소/공공기관 물리·작업치료사 장애인&노인 운동(작업)처방 전문가 양성 △물리·작업치료사 공동 연구 및 자격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형 인재양성 △지역사회, 산업체, 대학 협업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물리·작업치료사는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양 기관은 관련 자격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이 실무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